

보 도 자 료



- ◆ 2025. 12. 10. (수) 배포
- ◆ 총 4쪽 (본문 2쪽, 붙임 2쪽)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웅 정책개발실장	☎ 032-770-8450
강민구 홍보실장	☎ 032-770-8630
김창석 홍보실 선임행정원	☎ 032-770-8637

극지연구소, 북극과학협력세미나 개최

개최 10주년 “북극협력주간” 행사 일환, 차세대 연구자가 보는 북극연구의 미래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부산 벡스코에서 오늘 북극과학협력세미나를, 이틀 뒤인 12일에는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미나는 해양수산부·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제10회 북극협력주간”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북극과학협력세미나는 “북극 과학의 새로운 목소리: 차세대 연구자들이 말하는 다음 10년”이라는 주제로, 극지연구소와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등이 공동 주관한다.
- 세미나에서는 2015년 시작되어 올해 11주년을 맞은 극지연구소 펠로우십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학교의 마그누스 드 비트 연구교수와 캐나다 메모리얼대학교의 토마스 피츠파트릭 프로젝트 엔지니어는 각각 한국과의 북극연구 협력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북극연구 추진에 있어서 협력 강화와 차세대 과학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다.

-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시니어급 연구자인 극지연구소 양은진 박사의 진행으로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3개국 6명의 신진과학자가 패널로 참여해, 차세대 연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앞으로의 북극과학 10년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세미나는 “오늘의 북극을 논하다: 2025 극지 이슈리포트*가 주목한 북극트렌드”를 주제로 북극항로를 포함한 올해 최신 북극동향을 논의한다. 세미나에는 극지연구소와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 (NRC), 미국 해양환경 NGO인 ‘오션 컨설번시(Ocean Conservancy)’, 한국 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배재대학교, 한화오션,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UST) 소속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 * 극지이슈리포트: 극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남북극 현안을 분석한 전문간행물. 2025년에는 북극항해술, 한-러 협력, 그린란드 가치, 북극 국제포럼 의의 등의 이슈를 다룬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북극협력주간 10주년을 맞아 현재·미래세대의 북극연구자를 이어주고, 차세대 과학자들이 북극의 미래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극과학 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차세대 연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북극과학협력세미나 프로그램

2.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세미나 프로그램

□ 북극과학협력세미나

- (일시/장소) 12.10.(수) 16:00-17:30 / 벅스코 제2전시장 5A홀
- (주제) 북극 과학의 새로운 목소리: 차세대 연구자들이 말하는 다음 10년
(Emerging Voices in Arctic Science: The Next Generation Speaks on the Next Decade)
- (주관) 극지연구소,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주한덴마크대사관, 극지신진연구자 연합 한국지부(APECS Korea)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6:00-16:10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김민경 경북대 교수(APECS Korea 의장)
16:10-16:20	환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철 극지연구소장 • 주한노르웨이대사관 • 주한덴마크대사관
16:20-16:25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사진 촬영
16:25~16:55	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PRI 북극권 펠로우십 수료자 발표(펠로우십과 나의 연구 여정) - Magnus De Witt (The Alaska Center for Energy and Power (ACEP), University of Alaska Fairbanks, 2022년 수료) - Thomas Fitzpatrick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2024년 수료)
16:55-17:00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및 토론 준비
17:00~17:30	패널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젊은 과학자가 보는 북극과학 다음 10년 - (좌장) 양은진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 Magnus De Witt - Thomas Fitzpatrick - 김민경 - 장승연(UST, APECS Korea 집행위원) - 민준홍(UST, APECS Korea 집행위원) - 김호정(경북대학교)
17:30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마무리

□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세미나**

- (일시/장소) 12.12.(금) 10:30~12:00 / 벅스코 제2전시장 323호
- (주제) 오늘의 북극을 논하다: 2025 극지이슈리포트*가 주목한 북극트렌드 (Arctic Trends from the Polar Issue Report 2025)
- (주관)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0:30-10:35	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정지훈 KoARC 사무총장 • 개회사 - 신형철 KoARC 위원장 (극지연구소장)
10:35-10:40	사진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사진 촬영
10:40-10:55	기조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북극해 연안 빙동역학 연구와 북서항로 - 발표자: 왕정용 캐나다국립연구위원회(NRC) 선임연구관 • 주제: 중앙북극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고려사항 - 발표자: Henry Huntington Ocean Conservancy 북극과학부장
10:55-11:35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2025 극지이슈리포트가 주목한 북극 트렌드 - 발표자 (과학)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정책) 최우익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교수 (정책) 한종만 배재대학교 명예교수 (산업) 안재우 한화오션 책임연구원 (미래) 장승연 UST 박사과정생
11:35-11:55	토론,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및 Q&A
11:55-12:00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마무리

* 2025년 주요 이슈로 ▲과학 기반 해빙 및 항행 정보 예측 체계 개발, ▲러-우 전쟁 이후 한-러 협력재개 가능성, ▲그린란드의 가치와 한국의 접근, ▲친환경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박 기술, ▲젊은과학자 시각에서 본 북극 국제 민·관 포럼의 의미 등을 리포트에 담음